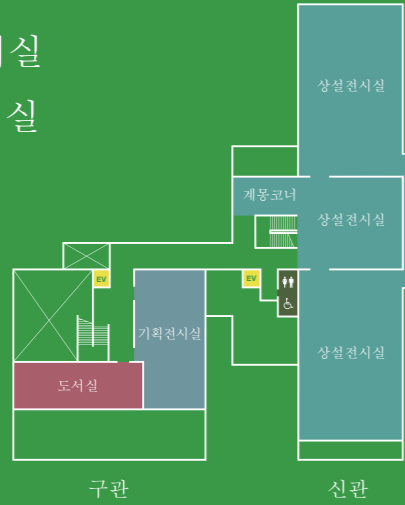


관내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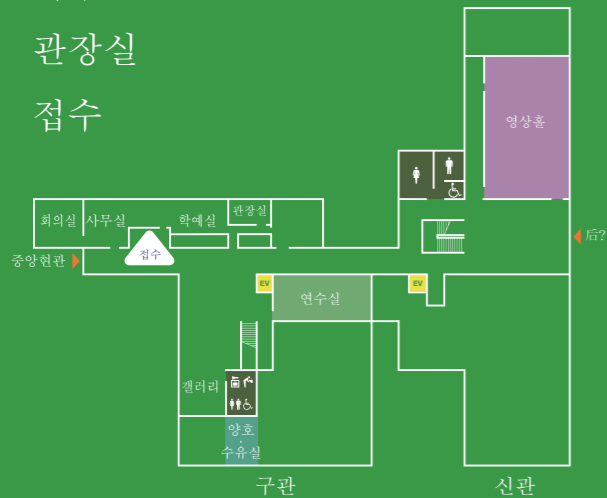
2 층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도서실



1 층

영상홀
연수실
사무실
관장실
접수



이용안내

개관시간 : 오전9시30분~오후 4시30분 (입관은 오후4시까지)

휴관일 : 매주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는 다음날)연말연시, 공휴일 다음날, 관내 정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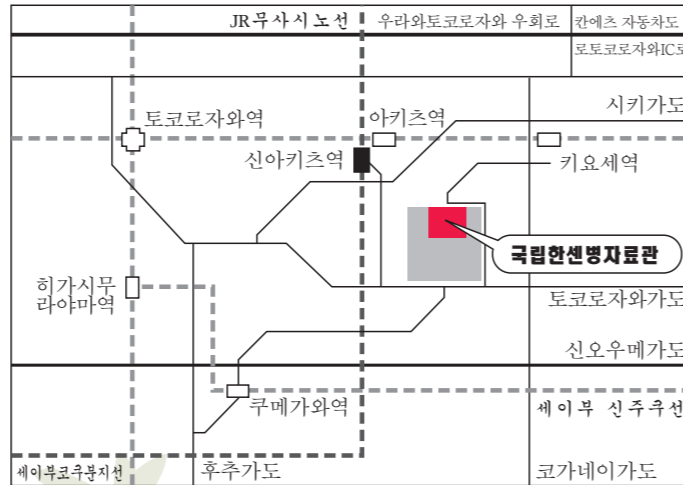
입관료 : 무료

교통안내 :

-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키요세역 남쪽출구에서, 쿠메가와역 방향 또는 도쿄로자와 동쪽출구 방향 버스로 약 10분
- 세이부 신주쿠선 쿠메가와역 남쪽출구에서, 키요세역 남쪽출구 방향 버스로 약 20분

※두 경우 다 [한센병자료관]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입니다.

- JR신아키즈역,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아키즈역에서 걸어서 약20분
- 칸에츠 자동차도로 도쿄로자와IC에서 약30분



국립한센병자료관

〒189-0002 도쿄도 히가시무라야마시 아오바초 4-1-13
전화 042-396-2909 / 팩스 042-396-2981
URL : <http://www.hansen-dis.jp/>

©2010

국립한센병 자료관



국립한센병자료관이란

1. 목적

「한센병 문제의 전면적 조기해결을 위한 내각총리대신담화」, 「한센병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 전문 및 제11조 (명예회복 등), 「한센병 문제의 해결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명예회복 및 사망자 추도)에 근거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보급과 계몽활동의 일환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과 계몽을 통해 편견과 차별의 해소 및 환자와 회복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한다.

2. 이념

- 한센병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이해의 촉진에 진력한다.
- 한센병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 및 배제의 해소에 진력한다.
- 한센병에 대한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온 편견과 차별, 특히 잘못된 격리정책의 역사를 학습하고 고난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체함과 마주하기 위한 자세를 전승한다.
- 한센병에 의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명예회복 및 인권존중 정신의 함양에 진력한다.
- 한센병에 의해 고난을 겪은 사람들과 사회와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해 진력한다.

3. 기능

교육계몽기능, 전시기능, 수집보존기능, 조사연구기능, 정보센터기능, 관리서비스기능, 기획조정기능

4. 연혁과 발자취

- 1993년6월 토후(藤樞)협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한센병 환자와 회복자가 살아온 증거를 남기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회에 호소할 목적으로 「타카마즈노미야기념 한센병자료관」을 설립 개관.
- 1996년 4월 나병예방법 폐지
- 2001년 5월 나병예방법 위헌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쿠마모토지방법원). 정부는 공소를 단념하고, 한센병 문제의 전면적 조기해결을 위한 내각총리대신담화를 발표. 그 중에「한센병자료관의 재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 2001년6월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시행
- 2004년 3월 후생노동성이 설치한 「한센병자료관 시설정비 등 검토간담회」가 한센병자료관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작성
- 2007년4월 「국립한센병자료관」으로서 재개관
- 2009년 4월 「한센병 문제의 해결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제18조에 「국립 한센병자료관 설치」가 포함되었다.

상설전시 안내

상설전시는 전시실1 「역사전시」, 전시실2 「나병요양소」, 전시실3 「살아온 증거」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실1에서는 한센병의 역사에 관한 전시를 보실 수 있고, 전시실 2와 3에서는 환자와 회복자의 생활 모습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1 「역사전시」

일본의 한센병을 둘러싼 역사를 정책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2 「나병요양소」

치료약이 나오기 전을 중심으로, 요양소 안의 환자들이 얼마나 가혹한 상황 속에서 생활했는지를 아홉 가지 측면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실3 「살아 온 증거」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남은 환자와 회복자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하신 분들이 환자와 회복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의 전시를 한 번에 다 보기는 힘들지도 모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마음에 남는 부분을 중심으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을 통해서, 병이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더라고,

모든 사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은,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자기 마음에 되묻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나병」이라는 말은 과거에 다양한 편견과 함께 쓰여, 환자 혹은 그 가족들의 존엄을 손상시켜 온 것 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한센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료관에서는 차별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역사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은?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만성 감염증입니다.

감염해도 꼭 발병하지는 않고, 현재는 발병 자체가 드뭅니다.

또 만일 발병해도 급격하게 증상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증상 자체는 반점과 지각마비입니다.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는 변형을 일으키거나, 닥더라도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로 외관 때문에 사회로부터 꺼려져 왔습니다.

현재는 유효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의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시실3

「살아온 증거」

1. 불치병에서 낫는 병으로
2. 삶의 보람 만들기
3. 의료의 진보
4. 일본 한센병 요양소의 현재
5. 해외 한센병의 현황
6. 공존공생을 향하여

전시실1

「역사전시」

1. 고대로부터 근세까지
2. 환자 수용의 시작
3. 격리의 강화
4. 화학요법과 환자운동
5. 나병예방법 폐지와 국가배상청구소송

전시실2

「나병요양소」

1. 나병의 「선고」와 수용
2. 요양소의 의식주
3. 나병의 치료
4. 환자작업
5. 요양소 내의 질서 유지
6. 결혼, 단종, 중절
7. 요양소 안의 학교
8. 사회의 편견
9. 요양소 안에서의 죽음

